

# 한진重, 해군 고속상륙정 4척 수주… 목표 150% 초과

&lt;조선부문&gt;

수심상관 없이 기동 가능  
독보적인 자체 기술 입증  
고속상륙정 총 8척 건조

한진중공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올해 초 계획한 수주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한진중공업은 병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의 차기 고속상륙정(LSF-II) 4척을 3160억원에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최근 두 달여 간 해군의 차기 고속정(PKX-B) 4척과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올 초 조선부문 수주목표치를 150% 초과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진중공업은 자체 기술로 건조한 해군의 고속상륙정(LSF-I)에 이어 차기 고속상륙정(LSF-II)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고속상륙정 건조사다. 지난 2007년 독도함에 탑재되



해군 고속상륙정(LSF-II).

는 차기 고속상륙정 2척을 인도한 바 있으며 2016년에도 후속함 2척을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이번 4척 수주를 더해 현재까지 발주된 총 8척의 고속상륙정을 건조하게 된 한진중공업은 다시 한 번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입증하게 됐다.

해군의 고속상륙정(LSF, Landing

Ship Fast)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ACV, Air Cushion Vehicle)의 일종이다. 수심에 상관없이 기동 가능하고 갯벌이나 하천, 해안가 등 일반 상륙정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형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 현대전에서의 상륙작전 개념을 바꿔놓은 최첨단 함정

으로 알려져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공기부양선과 아시아 최초의 디젤추진 공기부양선, 해군의 첨단 상륙함정 등을 독자 개발해 온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속상륙정도 완벽히 건조해 국가 해상전력 증강에 일의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각종 함정 수주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수의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중견선사인 동진상선과 선박 탈황설비인 삼스 스크러버 설치 공사 계약을 맺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선박 유지·보수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와도 기술협약을 맺고 엔지니어링 용역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에 기여도가 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전무(오른쪽)와 ABS 패트릭 라이언 글로벌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탈탄소화 및 디지털 선박' 공동 연구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美선급협회**  
**글로벌 환경규제 선제 대응**  
**탈탄소화·디지털화 공동연구 협약**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환경규제 '국제해사기구(IMO) 2030'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국선급협회(ABS)와 손잡고 기술개발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글로벌 선급인 ABS와 '선박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관계자는 "ABS의 이번 협력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선박 탈탄소화 요구에 대한 방안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초대형 선박용 탈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40%로 줄여나가기로 한 IMO 2030에 선대응하기 위해서다. IMO 2020이 확산화될 배출 규제라면 IMO 2030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 핵심 추진 목표다. /양성운 기자

## 스피드에 정숙성… ‘덩칫값 제대로’

### YG의 카톡 car talk

#### 포드 올 뉴 익스플로러

주행 초반 가속반응 아쉽지만 고속도로에선 속도 매력 발산 엔진음·노면소음 거의 안들려

포드가 9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6세대 '올 뉴 익스플로러(사진)'의 존재감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익스플로러는 1990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가 판매된 글로벌 모델로 국내에서도 2017~2018년 2년 연속 수입 SUV 판매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번에 내놓은 익스플로러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1000대 이상의 계약건수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포드의 애심작 '올 뉴 익스플로러'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 구간은 서울 삼성역을 출발해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더스데이 힐링파크를 왕복하는 약 130km에서 진행했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첫 인상은 스타일리시하면서 모던함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전 세대보다 한층 날렵하고 스포티해졌으며 전면의 육각형 시그니처 그릴 디자인은 강인한 SUV 특유의 외관을 연출했다. 실내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느낌이

다. 대시보드는 이전 세대까지 기울어져 답답하다는 느낌이 커졌지만 이번엔 수평형 디자인을 적용해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

주행 성능은 초반 가속 반응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익스플로러는 2.3L GTDi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304마력과 최대토크 42.9kg·m의 힘을 낸다. 3.5L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 수준의 힘이다. 변속기는 자동 10단 변속기가 결합했다. 초반 반응은 약간 부족했지만 고속도로에서 가속성은 뛰어났다. 와인딩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경기 유명산 인근 구절양장 구간에서도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민첩하게 빠져나갔다. 엔진음은 물론 노면소음, 풍절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성도 뛰어났다.

대형 SUV인 만큼 적재공간은 여유로웠다. 전장과 전폭은 각각 5050mm와 2005mm이며, 휠베이스(앞뒤 바퀴 간 거리)도 3025mm에 달해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3열 시트의 경우 성인이 앉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또 골프백을 가로로 4개를 쌓아 옮길 정도의 크기를 자랑한다.

연비도 예상보다 만족스러웠다. 다운사이징 엔진에 자동 10단 변속기를 결합해 복합연비(8.9km/L)를 넘어서는 9.7km/L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는 일본에 올레드 8K TV를 출시했다.

## LG전자 ‘올레드8K TV’ 외산 무덤 일본 출사표

### 내년 도쿄 올림픽 수요 기대

LG전자가 일본에도 진짜 8K TV를 선보인다.

LG전자는 10일 일본 시장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지 대형 유통점인 요도바시카메라와 빅쿠카메라 등 주요 매장에 진열을 마무리 했다.

LG전자는 일본 시장이 올해 올레드 TV 점유율 20%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다고 봤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8K 해상도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 일본법인장 이영채 상무는 “외산의 무덤” 일본 시장에서 독보적인 올레드 기술을 앞세워 LG만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왔다”며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은 압도적 화질의 올레드와 세계 최고 8K 해상도를 결합해 일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 롤스로이스 IT 혁신가 타깃 ‘판교 라운지’ 오픈

롤스로이스가 성공한 청년 사업가를 직접 찾아나섰다.

롤스로이스모터카는 10일 판교테크노밸리에 ‘판교 라운지’를 공식 오픈했다.

판교 라운지는 아태지역 최초로 복합 건물에 자리 잡은 롤스로이스 전시장이다. 도전과 혁신으로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든 이들에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다.

판교 라운지는 롤스로이스 최고급 라인업인 ‘블랙 베이지’ 컨셉트로 꾸며졌다. 이날에는 지난 6일 출시한 ‘블랙 베

지 컬리넌’과 함께 블랙 베이지 던을 함께 전시했다. ‘라운지 시트’와 오디오 비주얼 월을 함께 배치해 블랙베이지를 더욱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롤스로이스는 판교 라운지를 단지 전시장이 아닌 ‘라운지 컨셉트’를 따라 카페와 바도 함께 갖췄다. 업무에 빠진 사업가들이 잠시 쉬면서 차량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스포크 블랙 티’와 각종 음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김재웅 기자



판교 라운지는 롤스로이스 최고급 라인업인 ‘블랙 베이지’ 컨셉트로 꾸며졌다. 이날에는 지난 6일 출시한 ‘블랙 베

## MS, 인텔 프로세서 탑재 서피스랩탑3·프로7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생산 성 향상을 강조한 ‘서피스 프로 7’과 ‘서피스 랩탑 3’를 공개했다. 서피스는 MS의 IT 기기 브랜드명이다.

MS는 1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둔 두 제품을 소개했다. 서피스 프로 7은 19일, 서피스 랩탑 3는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서피스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꼽히는 서피스 프로는 태블릿 형태로 터치식 키보드를 장착하면 노트북처럼 이용 가능한 투인원 기기다. 신제품 서피스 프로 7은 최신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작인 서피스 프로 6보다 속도가 약 2.3배 빨라졌다. 기존 플래티넘 색상에 매트블랙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다양한 컬러의 시그니처 타입커버 및 서피스 펜 또는 아크 마우스를 결합할 수 있다. 서피스 랩탑 3는 13.5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모델로 터치스크린 기능을 추가했다. 13.5인치 모델은 최신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를 통해 속도와 성능을 강화했으며, 15인치 모델의 경우 서피스 전용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통해 그래픽 성능을 강화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